

服飾美範疇의 概念構造에 관한 研究

—쉬크와 댄디즘을 중심으로—

오 현 정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Concept Structure of Categories in the Beauty of Clothing

— On the basis of Chic and Dandism —

Hyun Jung Oh

Dept. of Clothing, Kwangju Univ.

(1992. 11. 23. 접수)

Abstract

Meaning of expressive words on the beauty of clothing is to comprehend inclusively with subjectivity and sensitivity. Suppose that meaning of the words was analysed, the study would be found type structural through a type of meaning component and inner reciprocity of elements. Category in the Beauty of Clothing was to consider various languages on beauty of clothing as the concept of the ty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oncept structure of Categories in the Beauty of Clothing. In this paper 'Chic' and 'Dandism' were analyzed.

As the result of the study, it is constructed at three different dimensions. They were the Beauty of phenomenone such as surface level, the Beauty of essence such as element level, and the Beauty of process that existed between the surface level and the element level. In addition, the idea words of each dimension were as follows; The Beauty of phenomenone was expressed 'refinement', 'wisdom' and 'originality'. The Beauty of essence was included 'subtly', 'grace', and 'sence/reason'. The Beauty of process was included the method of 'harmony' and 'proficiency'.

I. 서 론

복식은 인체에 입혀질 것을 전제로 하며, 기술, 물질 문명이나 개인적인 취향, 상징, 미의식 등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생활 조형품¹⁾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형품을

생산하는 조형예술은 물질적인 재료나 수단으로 호소하게 되며 공간 내에서 성립되고, 이때 형성되는 공간은 정지와 병렬의 상태로 있어서 가시성을 가지므로 조형예술과 관계되는 주된 감각은 시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²⁾.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은 의식적인 인간행동의 산물

1) 曹圭和, 服飾美學, 修學社, 44-47, (1985).

2) 竹內敏雄(다케우찌 도시오),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310-311, (1989).

이며, 일정한 법칙을 따르려는 성질을 가진다³⁾고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품은 시각, 촉각, 청각 같은 감각적 매개를 사용하여 예술가의 목적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조형예술과 예술작품에 대한 이와같은 견해에 따라서 복식의 예술적 가치를 재 평가해 본다면, 복식은 그 시대의 사상, 정서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출할 뿐 아니라 물질적 재료나 수단에 의해 제작되고, 인체에 입혀지며, 가시성을 가지므로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서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정홍숙(1990)⁴⁾, 김민자(1989)⁵⁾, 조규화⁶⁾, 박명희⁷⁾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복식은 예술작품이고, 조형예술의 한 분야임이 이미 알려졌다.

복식미학은 의복이 갖는 미적 가치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미적현상에 관한 본질이나 법칙을 찾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⁸⁾. 복식미학의 학문적 영역은 복식미의 구성요소와 복식미 개념의 성립근거 면에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복식미학의 연구대상인 복식미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다. 형식요소로는 선, 색, 재질이라는 조형요소와 비례, 균형, 리듬, 강조와 같은 조형원리가 있겠고, 내용요소로는 상징이나 개념학에 근거한 내포 의미가 있겠다. 다음으로 복식미 개념의 성립 근거면에서 볼 때 객관적인 복식미 개념과 주관적인 복식미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객관적인 복식미라면 '복식이라는 대상 속에서 미를 결정하는 성질이 무엇인가?'⁹⁾에 대한 개념적 접근으로 얻을 수 있겠다. 객관적인 미 개념은 18세기 이전의 고전적 미학에서 다루던 중심 과제였으며, 그 중심 개념은 비례, 질서, 균형, 절도 등으로 이성에 근거하는 개념이었다. 주관적인 복식미라면 복식미를 파악하는 주체의 태도 혹은 작용의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성질의 미개념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체험이나

사회적 상징, 문화적 내포 의미 등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복식의 미적 측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라면, 우선 형식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식의장학적 입장에서 연구되었다^{10~12)}고 할 수 있겠다.

DeLong¹³⁾(1968)은 의복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디테일과 트리밍이 포함되는 선의 배치(layout), 염료(pigment), 빛에 의한 음영(shadow)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이 요인들의 조작에 의해 의복은 시각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그는(1977)¹⁴⁾ 선의 배치, 음영, 무늬를 변화시킨 자극물을 사용하여 의복의 시각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의복 전체가 인식되던 후에 부분들이 인식된다는 결과를 얻기도했다. 즉 선, 색, 재질의 디자인 요소를 시각적인 분석 요인으로 제시하고 실증 연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Sailor(1971)¹⁵⁾는 의복에서 선(line)을 인식할 때에 선의 수, 방향, 위치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Sproles(1981)¹⁶⁾는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의복의 미적차원을 선, 색, 재질같은 디자인 요소로 분석했다. 김영자(1984)¹⁷⁾는 각 시대의 저고리 형태에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비례미의 조화를 찾음으로써, 황금비례는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미감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경희등(1990)¹⁸⁾은 의복의 시각적 이미지

3)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27(2), 4, (1989).

4) 鄭興淑, 近代服飾文化史, 敎文社, (1990).

5) 김민자, op. cit., (1989).

6) 조규화,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4), (1992).

7)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1).

8) 曹圭和, op. cit., 10-13.

9) Wladyslaw Tatarkiewicz,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이문과 실천, 165, (1990).

10) 李恩英, 服飾意匠學, 敎文社, (1983).

11) Davis, M.,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0).

12) Mcjimsey, H., Art and Fashi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 (1973).

13) DeLong, M.R.,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J. of H.E.*, 6(10), 784-788, (1968).

14) Delong, M.R., clothing and Aesthetics Perception of Form, *H.E.R.J.*, 5(4), 214-234, (1977).

15) Sailor, J.P., Perception of Line in Cloth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3, 987-990, (1971).

16) Sproles, G., Perspectives of Fashion: The role of aesthetics in fashion oriented consumer behavior, 120-127, (1981).

17) 金榮子, 韓服의 黃金比 分析에 의한 研究, 服飾, 8, 19-56, (1984).

18)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원피스 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314-323, (1990).

를 좌우하는 요소로 형태와 색채, 선을 제시했으며, 그 중 선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실험했다. 오현정(1990)¹⁹⁾은 의복의 미적가치를 평가할 때, 조형요소들 중에서 좀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의 순위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복식의 미적인 측면 중에서도 주로 디자인 원리와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라 하겠다.

최근 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내용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복식미의 개인적 체험이나 사회, 문화적 상징같은 내포의미를 밝히려는 복식문화사적 연구와 함께 특정 시대의 예술양식과 복식과의 관계 연구라는 복식의 예술적 가치를 통해서 복식미를 탐구하려는 경향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⁰⁻²³⁾. 김민자(1987)²⁴⁾는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역사적 흐름과 상징성이 현대 패션 디자인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김영옥(1987)²⁵⁾은 페르시아와 비잔틴의 직물 문양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고 주제를 분류하므로써 문양의 상징적 조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영옥(1991)²⁶⁾은 서양 문장에 나타난 그림 형태의 역사적 변천과 상징성을 밝혔다. 광미영(1991)²⁷⁾은 여성해방 운동의 전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성들의 의식이 복식의 변화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주장했다. 최현숙(1992)²⁸⁾은 60년대 미국사회를 풍미하던 시대정신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의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조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 당시

의상평론가이자 당대의 가장 전위적인 디자이너로 평가되던 루디 건릭의 작품을 통하여 고찰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대정신이나 사회, 문화적 상징같은 내포의미가 복식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외에도 다수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또한 조규화(1991)²⁹⁾는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풍속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탄생된 아르데코의 색채 특성을 고찰한 바 있으며, 박명희(1992)³⁰⁾는 건축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식적 특성을 토대로 하고, 1980년대의 패션을 분석하여 복식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을 밝힘으로써 한 시대의 예술양식 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즉 예술사조와 패션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복식미 연구가 복식의장학적 측면과 복식문화사 혹은 예술사적 측면에서 각각 접근되었으나 복식미학의 입장에서 복식미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아직 적은 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최윤미(1991)³¹⁾는 예술사 측면에서 논의되어 오던 양식개념과 변화 모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1930년대 이후 복식에 나타났던 초현실주의를 양식사적으로 고찰했으며, 구미지(1992)³²⁾는 예술사적 양식개념과 복식에서의 양식개념을 정리하고, 장식유형에 따라 복식을 분류해 보았다. 이들 연구는 예술학적 입장에서 나온 미 이론을 복식에서 재해석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예술적 개념과 복식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나아가 복식 고유의 개념 영역으로 재흡수하려는 노력은 의복에 나타나는 미적현상의 본질이나 법칙을 찾고자 하는 복식미학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복식미는 복식을 대상으로 얻어지는 미이므로 일반 미 중에서도 구체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들 현상의 개개를 의미 분석한다면 복식미 현상의 형식이 밝혀 지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식미범주라고 할 수 있는 용어들의 내포의미를 분석하여 각 범주가 가지는 공통되는 형식이나 개별적인 의미차이를 통해서 복식미 현상의 개념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복식미 현

- 19) 吳泮靜, 李恩英, 衣服에서의 造形美와 流行 評價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4(4), 245-251, (1990).
- 20)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1988).
- 21) 김민자, op. cit., (1989).
- 22) 李銀永, 현대복식에 있어서의 예술성의 개념,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23) 이효진, 정홍숙, 현대의상 직물 문양에 조명된 신인상주의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3), (1992).
- 24)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69-89, (1987).
- 25) 金英玉, 페르시아 織物文樣과 비잔틴 織物文樣의 造形性比較, 한국의류학회지, 11(3), 1-14, (1978).
- 26) 崔英玉, 西洋文章의 象徴性에 關한 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4(3), 196-207, (1990).
- 27) 광미영, 정홍숙,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239-250, (1991).
- 28) 최현숙, Rudi Gernreich의 작품에 나타난 시대정신, 한국의류학회지, 16(4), 457-470, (1992).

- 29) 조규화,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4), 381-392, (1991).
- 30) 박명희, 임원자,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Post Modernism,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회집, 16, (1992).
- 31) 최윤미, op. cit., (1991).
- 32) 구미지, op. cit., (1992).

상의 일부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연구결과는 복식미학의 이론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기대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복식미학에서 이미 복식미범주로 제시^{33, 34)}된 바 있는 '쉬크(chic)'와 '댄디즘(dandism)'을 선택하였다. 복식미의 하위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쉬크'나 '댄디즘'같은 범주들의 내포의미를 분석, 정리하여 개념들의 형식구조를 밝히고, 의미를 설명하므로써, 애매모호하던 복식미 범주들의 특성이 분류될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식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절차로는 우선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범주론과 양식론, 그리고 복식미범주의 개념 범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복식미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서양 여성복의 '쉬크'와 서양 남성복의 '댄디즘'을 의미론적 입장에서 분석한 후, 내포의미의 유사성과 개별성을 통해서 복식미 범주를 구성하는 의미요소의 구조를 밝히는 순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범주론과 양식론

피타고라스 이후 2천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서양의 미 개념이라면 질서, 균형, 비례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 속에서 아름다움(美)이 얻어진다는 것이었다. 18세기 이후 경험주의 철학과 낭만주의 예술은 미 개념을 주관적, 상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객관적, 절대적이었던 이전의 미 개념은 변화하게 되었다. 미에 관한 모든 판단이 개별적 판단이라고 한 칸트의 단언 이후, 미에 관한 모든 일반 명제는 단지 개별적 진술에 근거한 귀납적 일반화일 뿐이라는 입장이 우세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⁵⁾. 그러므로 전체 미를 포괄할 만한 광범위한 대어론은 있을 수 없고, 단지 미에 관한 하위개념을 유출해 내는 것이 필요할 뿐이었다. '숭고', '섬세', '우아' 등의 다양한 개념들로 미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뒤 따르게 되었으며, 칸트는 이같이 더 이상 분화할 수 없는 선형적인 기본개념을 '범주'라 명명했다.

범주론을 처음으로 제창한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였으나 칸트에 의해 범주론이 확립되었다. 칸트는 범주를 순수 오성에서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기본 개념으로 설명³⁶⁾하므로써, 미 인식의 보편성을 제창했다고 하였다. 즉 범주란 감각적인 자료들을 객관적인 경험의 통일로 종합하게 하는 기본형식이므로³⁷⁾ 미적범주들은 경험되는 대상들 즉 미적 현상들에 대한 형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칸트파에서 범주는 각각의 과학의 논리적 기초인 선천적 개념이라고 해석했고, 유물 변증법에서는 대상의 가장 일반적인 연관을 반영하는 기본개념을 범주라 했다.³⁸⁾ 일반적 의미에서 범주는 동류(同類)의 것이 딸려야 할 부류 또는 범위를 뜻하지만³⁹⁾, 철학적 의미로서의 미적범주란 그 근거에 미적인 정신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통의 원리적 구조나 성격을 띠면서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미의 특수상을 몇가지 유형개념(類型概念)으로 구분한 것⁴⁰⁾이다.

미적 범주론은 과거 독일 미학의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으나 예술 양식론의 대두에 따라 양식론으로 교체되면서 요즈음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¹⁾. 양식(style) 개념은 18세기 빙켈만(Winckelmann)에 의해서 미술사의 영역에 도입되었고, 19세기 중엽 이후, 쟬퍼(Semper), 리글(Riegl), 뵐플린(Wölfflin)등에 의해 발전하여 미학과 일반 예술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⁴²⁾. 양식이란 말은 예술작품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사한 특성을 밝히거나 다른 특성과 구별지워주는 기술적, 분류적 의미와 가치판단을 가능케 하는 평가적, 규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⁴³⁾. 양식은 예술작품의 고유한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작품들 간의 관계를 밝혀주어 방대한 작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예술상의 양식개념은 예술적 표현이나 형성 방식의 유형

36) Kant, I., 이석윤 역, 판단력비판, 박영사, 17-53, (1985).

37) 순수이성비판, 서울대학교 미학과 內 예술분과회의 하기 세미나 자료 2호, 8, (1992).

38)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424, (1990).

39) 새 우리말 큰사전, op. cit., 1424.

40) 다계우씨 도시오, op. cit., 268.

41) 다계우씨 도시오, op. cit., 271.

42) 다계우씨 도시오, op. cit., 291.

43) 홍승기, 미술사에 있어서 양식개념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최윤미, op. cit., 재인용, 10.

33) 曹圭和, op. cit., 333-357.

34) 張文戶, 服飾美學, 世運文化社, 193-195, (1977).

35) 블라디슬로프 타타르키비츠, op. cit., 170.

적 분화에 관한 기술 개념으로 사용된다.

범주론이 양식론으로 대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범주' 혹은 '복식미 범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출간된 복식미학 저서들에서 쓰여진 용어라는 점과 양식론은 범주론을 더욱 확장시킨 이론이므로 범주론은 양식론의 부분이라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복식미 개념에로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범주론을 양식론의 세분화된 의미로의 유형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의 양식론 연구가 형식적 측면에서 주로 행해졌으나 본 연구는 정신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차별화의 의도도 작용했다고 하겠다.

2. 복식미 범주

복식계에서 다루지고 있는 범주화 이론이라면 우선 대인지각 시 성별, 연령, 의복 특히 외모단서 등에서 얻어지는 인상형성 내지는 인상관리라는 의상사회심리학적 입장⁴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인상형성 연구에서 범주화 이론을 사용한 김희숙⁴⁵⁾은 의복범주를 독립 변인으로 채택했으며, 의복범주 수준으로 서양복과 한복을 택 함으로써 범주를 '유목화'나 '분류'의 의미로 사용했다. 의복을 통한 대인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범주화는 의복이나 외모단서의 특성에 따른 기술적, 분류적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다음으로 복식미학의 입장에서 본 복식미 범주가 있겠다. 장문호⁴⁶⁾는 복식이 갖는 미적가치는 다양한 형용사로 표현되어 왔으며, 그 종류를 간주려 보면, elegant (프), cutie, classic, chic, simple, smart, dandy, high collar, dressy, sporty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규화⁴⁷⁾는 복식에서의 미의식은 유행이 형이나 색등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를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들은 미의식을 풍부하게 해 주며, 이와같은 미의식 속에 정착된 복식미의 범주 중에 현저한 것을 보면 쉬크(chic), 댄디(dandy), 이끼, 멋등이 있다고 했

다. 그러므로 복식미학의 입장에서 본 복식미의 미적가치는 유행이 포함되서 형성되며, 복식미 범주는 쉬크, 댄디, 엘레강, 클래식 등처럼 다양한 형용사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복식들을 분류, 평가하려는 시도에서 양식의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복식에서의 양식이란 복식의 특징적이며 구별되는 외관으로써, 외형, 재료, 디테일 등 외관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해되거나 또는 구조적인 선의 재단에 의해 부여된 특징적인 형이나 실루엣을 말하기⁴⁸⁾도 하는데 이들은 유형개념으로 분류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주로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가 행해졌으나 양식은 형식과 내용의 이중 근원에서 형성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외면적인 지각 이상의 이해작용을 전제로 하여 대상이 뜻하는 바를 내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복식들의 내면적 분류 및 평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복식미범주를 통해서 추상적, 관념적인 각 범주가 뜻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식미 범주라는 용어는 있으나 연구 주제로 사용된 바 없는 현 실정에서, 이미 연구 발표된 바 있는 양식론의 입장을 통해서 복식미범주의 개념 범위를 설정해 보았다.

유형(type)은 '반복성과 개별성으로 자체의 성격을 지니며 한 그룹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반복성이란 작품 자체의 본질적인 원리를 말하며, 개별성이란 작품이 갖는 고유한 예술적인 경향을 의미한다⁴⁹⁾고 한다. 복식미 범주를 유형개념으로 간주한 본 연구에서, 복식미범주의 내포의미를 분석했을 때 내용 혹은 형식에서 유사하거나 차이가 난다면 이는 유형으로의 복식미범주 자체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유사성으로의 공통점은 복식 자체의 본질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 개별성으로의 차이점은 복식미범주의 독특한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범주론과 양식론과의 관계, 양식론에서 중요한 유형개념을 살펴본 결과, 본 고의 핵심어인 복식미 범주의 개념 범위를 양식이 가지는 일반적 의미로의 유형개념으로 간주하고 내용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44)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36, (1985).

45) 김희숙, 김재숙, 의복범주와 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이 대학생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술 발표집*, 58, (1992).

46) 장문호, *op. cit.*, 186.

47) 조규화, *op. cit.*, 333.

48) 구미지, *op. cit.*, 316.

49) 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 개념 및 유형학적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구미지, *op. cit.*, 재인용, 317.

III. 의미분석 및 개념구조

개념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사유 형식으로서 언어로 표현하면 의미로서 존재한다⁵⁰⁾. 언어는 사물의 종류를 개념화한 후, 그 개념들을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언어는 다분히 심리적, 정신적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단어는 항상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 속에서만 그 의미를 드러내므로, 내포의미는 현실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사회집단, 문화배경, 연령의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개념의 분석에는 두가지가 있어서, 한가지는 외연의 분석이고 또 한가지는 내포의 분석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념의 내포 분석은 단어의 의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미란 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낱말들' 또는 '관련되는 개념들'⁵²⁾이라 한다. 단어에 얽혀있는 의미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인 어휘의미론의 입장⁵³⁾에서 볼 때, 사물의 종류를 개념화한 것이 언어이므로 만일 언어의 의미성분을 분석해 낸다면 의미성분의 유형과 성분 상호간의 내적 관계에 의해 구조적 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복식미 범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각 범주에 관련되는 개념들을 통해서 각 범주들 간에 반복되는 유사성이나 차이나는 개별성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형식구조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식미 범주로 제시된 바 있는 '쉬크'와 '댄디즘'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내포의미를 분석하여 복식미범주의 개념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쉬크와 댄디즘의 의미

프랑스의 복식형태는 중세 고딕복식의 환상적 공상적 실루엣이 16세기 르네상스가 되면서 긴장된 인위적인 조형으로 변했으며, 17세기에 이르러 호화롭고 장중하며 현란한 전개를 보이게 되었다. 18세기 로코코 시대에는 전(前)시대의 긴장감이나 장중함은 없어지고 대신 곡선

적이고 인간의 감성에 의한 정서감에 충만된 조형적인 완성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이상주의적 혁명 이념에 따라 새로운 복식 조형이 등장하지만, 뒤이은 낭만주의의 팽배로 19세기는 대별되는 가치들의 공존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자의 옷차림 상태를 말하는 '쉬크'와 남자의 복장 및 생활태도에 관한 용어 '댄디즘'은 이와같은 복식의 흐름을 배경으로 19세기 이후 사용되어진 복식미 표현어이다.

쉬크는 스마트(smart), 엘레강(elegant), 멋진, 유행하고 있는, 교묘한 기교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어 쉬카느(chicane)의 준말로서 재판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 '섬묘한 계책'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독일어의 쉬켄(schicken)에서는 모든 일에 관해서 '교묘', '적합한 재치'를 의미한다. 어원을 통해서 본 쉬크의 의미는 미숙하지 않은 교묘한 기교이므로 기교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기교를 구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어원적 접근에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정착되었을 쉬크의 개념은 사교사롱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권세, 야심, 애증, 허위, 환락등의 감성을 직관하면서도 노출없이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낭만적인 표현속에서 고전적인 질서를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욕망을 질서의 우아한 세계로 끌어올리는 세련성을 가지고, 확실한 자기주장의 의욕을 내포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쉬크의 의미를 조규화(1984)는 미숙하지 않은 능숙한 교묘함이라는 면에서 섬세한 지혜의 정신, 감성미와 이성미의 조화를 원하는 세련성, 우아한 표현 중에 빛나는 독창성의 3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멋장이 남자를 의미하는 댄디는 19세기 초 영국의 섭정 황태자와 청년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신사 복장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하며, 제일 좋은 것을 원하면서도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싸는 것이 과제였다. 즉 눈에 띄거나 새로운 변화를 원하기 보다는 우수한 질, 조화있는 색채의 배합, 최고의 바느질 솜씨를 사용하여 특정 인체 부위를 과장하지 않고 가장 섬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벽(지혜)을 주장했다고 하겠다. 복장, 태도, 취미, 생활등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댄디즘은 우아함을 추구했으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는 세련됨과 눈에 거슬리지 않는 조화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데 의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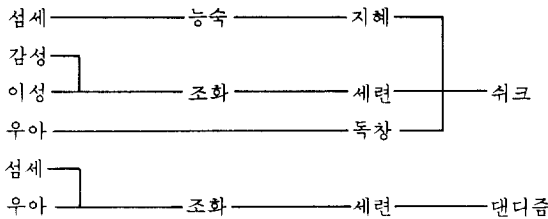
50) 김봉주, 개념학, 한신문화사, 21, (1992).

51) 流在箕, 李基用, 李廷旼 著, 意味論序說, 集文堂, 59-62, (1991).

52) 김봉주, op. cit., 58.

53) 流在箕, 李基用, 李廷旼 共著, op. cit., 20.

위에서 살펴본 쉬크와 댄디즘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쉬크한 차림에서 얻고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 세련, 독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의복을 통해서 표현되는 일반적인 존재형식으로의 미 라고 할 수 있다. '섬세, 감성/이성, 우아'는 '지혜, 세련, 독창'을 구성하고 있는 세분화된 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능숙, 조화'의 방법을 통해서 표면화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쉬크의 미의식에는 최소의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섬세, 우아, 감성/이성' 같은 개념이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댄디즘'에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라는 방법을 매개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세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련을 구성하는 세분화된 미로는 '우아와 세심(섬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댄디즘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미는 '세련'이고, 세련에 내포된 개념은 '섬세와 우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쉬크와 댄디즘의 의미를 도시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복식미 범주의 개념

2. 쉬크와 댄디즘의 개념구조

쉬크와 댄디즘에 내포된 의미성분 상호간의 내적관계를 단계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복식미를 보여주는 표면화된 미차원이 있다고 하겠다. '세련, 지혜, 독창'은 사람들이 의복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구체적인 추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로 표현방법에 대한 복식미 차원이 있다고 하겠다. '조화, 능숙'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혜, 세련, 독창'같은 미적가치를 얻게 해 주는 매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끝으로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복식미 차원이 있다고 하겠다. '섬세, 우아, 감성, 이성'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즉, 복식미범주가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의 구성단위를 가지고, 구체화를 위한 매개방법을 통해서 현상화 된다는 것이다.

멋의 의미를 분석한 바 있는 조지훈⁵⁴⁾은 '멋의 현상은 멋 작용의 결과이며, 멋 작용은 멋 본질의 현상화이며, 멋 본질은 멋 현상을 떠나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멋의 의미를 본질, 작용, 현상의 세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멋'은 포괄적 의미를 갖는 추상 개념어이므로 내포의미를 분석했을 때 서로 다른 세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언어학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관념(idea), 개념(concepe), 염소(concepeme)의 세가지 층위로 구별⁵⁵⁾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구조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문학과 언어학 등에서 제시된 바 있듯이, 복식미 범주의 한 예로 선정되었던 쉬크와 댄디즘의 내포의미를 분석한 결과, 개념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복식미 범주의 하나인 '쉬크'와 '댄디즘'의 의미를 단계에 따라서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표면화되는 현상미 차원이 추구수준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본질미 차원은 최소의 구성요소수준, 그리고 표현 방법을 의미하는 작용미 차원이 중간에서 연결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세가지 층위로 구분했던 복식미범주의 개념구조를 <표 1>에 제시해 보았다.

<표 1> 복식미범주의 개념구조

| 본질미 | 작용미 | 현상미 | 미차원 |
|---------------------|------------|-------------------|-------|
| 섬 세 감성/이성 우 아 | 능 숙 조 화 | 지 혜 세 련 독 창 | 쉬 크 |
| 섬 세 우 아 | 조 화 | 세 련 | 댄 디 즘 |

쉬크와 댄디즘은 사용시기로 보아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했지만 용도에는 차이가 있어서, 쉬크는 여자 옷차림을, 댄디즘은 남자의 옷차림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의미 분석 결과, 쉬크와 댄디즘은 세가지로 구별한 미차원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본질미로의 '섬세'와 '우아', 작용미로의 '조화', 현상미로의 '세련'이

54) 趙芝勳, 멋의 研究-韓國의 美意識의 構造를 위하여, 韓國人과 文學思想, 383, (1964).
55) 김봉주, op, cit., 84.

공통적 이었듯이 ‘댄디즘’이 ‘쉬크’의 일부본인 듯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어나 언어가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사회조건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하다면 언어형태는 서로 다르더라도 내포 의미는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쉬크와 댄디즘은 다같이 19세기라는 같은 시대적 배경과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동일한 유럽문화권에서 탄생한 복식미 표현어이기 때문에 각 차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IV. 결 론

복식미에 관한 표현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포괄적인 추상 개념어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내포의미는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복식미 표현어를 유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복식미 범주의 의미를 분석해서 얻었으며,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복식미범주의 개념구조를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론의 기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유형개념으로 복식미범주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복식미 범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쉬크’와 ‘댄디즘’이 선정되었다.

쉬크와 댄디즘의 의미를 비교 분석했을 때 커다란 의미차는 발견하지 못했다. 쉬크와 댄디즘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시대는 모두 19세기였으며, 쉬크는 프랑스에서, 댄디즘은 영국에서 탄생했으므로 사회집단이나 문화환경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차가 없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연구 결과, 쉬크와 댄디즘이 갖는 의미구조의 유사성을 세가지 층위로 구별하여 <표 1>에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로 표면화되는 현상미 차원이란 할 수 있는 추구수준이 있어서 ‘지혜, 세련, 독창’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둘째, ‘조화, 능숙’같은 표현 방법을 의미하는 작용미 차원이 있었다. 셋째, ‘섬세, 우아, 감성, 이성’같은 구성요소 수준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본질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복식미는 유행같은 시대양식이 반영되어서 미적가치를 가지므로 의류학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식미 범주란 더 이상 분화할 수 없는 선험적, 보편적인 류(類)개념이라기 보다는 담겨지는 내용에 따라 변화해 가는 역동적인 관계 개념으로써 하나의 구조로 이해됨이 타당하

다 하겠다. 따라서 복식미 범주는 시대나 사회, 문화별로 변화할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지속적일 것인 반면 변화의 일부는 특정 시대나 문화별로 독특함을 가질 것이다. 이런 경우 보편적,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성으로 표출되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반복되는 원리가 될 것이며, 서로에게 독립적인 개념은 시대와 문화의 개별성으로 한 범주의 고유특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복식미범주의 예로 선정했던 ‘쉬크’와 ‘댄디즘’은 시대와 문화권이 유사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독립적인 특질은 없었으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개념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만일 시대와 문화권이 서로 다른 곳에서 형성된 복식미범주로의 언어를 선택했다면 차이점 내지는 공통점이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서양의 복식미 범주와 우리나라의 복식미 범주의 내포의미를 비교분석 한다면, 문화나 시대의 차이로 발생되는 고유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 결과에서 얻은 개념구조가 보편적, 기본적인 구조인지도 비교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복식미범주의 문화간 비교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광미영, 정홍숙,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239-250, (1991).
- 2) 구미지, 러스킨의 장식유형 분류를 사용한 19세기 복식 장식의 유형학적 해석, 한국의류학회지, 16(3), (1992).
- 3)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27(1), (1989).
- 4)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69-89, (1987).
- 5) 김봉주, 개념학, 한신문화사, (1992).
- 6) 金英玉, 페르시아 織物文樣의 造形性 比較, 한국의류학회지, 11(3), 1-14, 91978).
- 7) 金榮子, 韓服의 黃金比 分析에 의한 研究, 服飾, 8, 19-56, (1984).
- 8) 김희숙, 김재숙, 의복범주와 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이 대학생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집, (1992).
- 9) 박명희, 임원자,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Post Modernism,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회집, 16, (1992).

- 10)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90).
- 11) 沈在箕, 李基用, 李廷旼 共著, 意味論序說, 集文堂, (1991).
- 12) 吳泓靜, 李恩英, 衣服에서의 造形美와 流行 評價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4(4), 245-251, (1990).
- 13)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원피스 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314-323, (1990).
- 14) 李恩英, 服飾意匠學, 敎文社, (1983).
- 15) 李銀永, 현대 복식에 있어서의 예술성의 개념,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16) 이효진, 정홍숙, 현대의상 직물 문양에 조명된 신인상주의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3), (1992).
- 17) 張文戶, 服飾美學, 世運文化社, (1977).
- 18) 曹圭和, 服飾美學, 修學社, (1985).
- 19) 조규화,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4), 381-392, (1991).
- 20) 鄭興淑, 近代服飾文化史, 敎文社, (1990).
- 21)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1983).
- 22) 趙芝勳, 멋의 研究-韓國의 美意識의 構造를 위하여, 韓國人과 文學思想, (1964)
- 23) 崔英玉, 西洋文章의 象徴性에 關한 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4(3), 196-207, (1990).
- 24) 최윤미, 복식사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25) 최현숙, Rudi Gernreich의 작품에 나타난 시대정신, 한국의류학회지, 16(4), 457-470, (1992).
- 26) 竹內敏雄(다케우지 도시오),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89).
- 27) DeLong, M.R.,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J. of H.E.*, 6(10), 784-788, (1968)
- 28) DeLong, M.R., Clothing and Aesthetics Perception of Form, *H.E.R.J.*, 5(4), 214-234, (1977).
- 29)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 30) Sailor, J.P., Perception of Line in Cloth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3, 987-990, (1971).
- 31) Sproles, G., Perspectives of Fashion: The role of aesthetics in fashion oriented consumer behavior, 120-127, (1981).
- 32) Kant, I., 이석운 역, 판단력비판, 박영사, (1985).
- 33) Mcjimsey, H.,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 (1973).
- 34) Wladyslaw Tatarkiewicz,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0).
- 35) Davis, M.,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0).
- 36) 순수이성비판, 서울대학교 미학과 內 예술분과회 하기세미나 자료 2호, (1992).